서비스산업발전TF
23-1-1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2023. 6. 5.

관 계 부 처 합 동

서비스 수출 정책 · 지원체계 혁신방안 (요약)

1 서비스 수출 현황 및 평가

□ (추진배경) 서비스 수출의 높은 **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 등 고려시 **정체된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 수출의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무협 추정): (서비스업) 0.812 / 21.3, (제조업) 0.613 / 8.2
* 서비스 수출/전체 수출 비중(%): ('90)15.3, ('00)16.1, ('10)15.2, ('19)15.7, ('22)15.9

□ (현황)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2년 年 1,302억불로 세계 15위 수준**(제조업(6위)에 비해 낮은 위상)

○ 과거 건설, 운송 중심에서 **여행과 지식 서비스**(ICT 등) 수출이 크게 증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도 **유망 수출 산업으로 성장**

* 서비스수지 분야별 수출액('10→'19→'22): (여행)103→209→120억불 / (ICT)10→77→118억불
* 콘텐츠 수출액(억불): ('10)32.3, ('19)102.5, ('21)124.5 ※ 출처: 문체부 콘텐츠산업조사
* 외국인 환자(만명): ('10)8.2, ('19)49.7, ('21)14.6, ('22)24.8 ※ 출처: 복지부

□ (평가) **그간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의 격차 지속**

○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상품수출**에 초점

* 수출 재정지원사업 중 서비스업 비중(코트라, 중진공, %): ('17) 19.3 → ('22) 20.4
수출금융 지원실적 중 서비스업 비중(수은, 무보 등 7개기관, %): ('17) 5.0 → ('22) 3.9

○ 현장에서 서비스기업은 **자금조달 애로,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을 여전히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서비스 수출 애로 요인 설문조사**(산업연, '22.12, 848개社)
❶연구개발·투자 등 **자금조달** 애로(19.8%), ❷현지 **시장정보** 부족(19.5%),
❸수출 **전문인력** 부족(17.9%), ❹**기술경쟁력** 열위(17.3%) 順

○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 부진***,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다부처 소관 과제가 증가하나 **서비스 수출 컨트롤타워 부재**

* 원산지 증명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 FTA 활용 지원사업 중 서비스업 지원은 無

□ (기회요인) 한류 등 **강한 소프트파워, 우수한 제조업·IT 경쟁력, 경제외교·FTA 성과**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그간 축적해온 산업 역량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노력 필요**

2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우리 서비스업이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

- 상품 중심의 수출 정책·지원 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혁신
-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ICT 등 업종별 수출 활성화 (별도 안건)

※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 노력 병행(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연내 발표)

비전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서비스 수출 강국 실현

목표

'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불 달성(세계 10위), '30년까지 2,500억불 달성(세계 7위),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

정책지원 체계 혁신

❶ 제조업과의 격차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 ◆ 수출지원사업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 역대 최대 수준의 서비스 수출금융 공급
- ◆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구축 추진
- ◆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등 수출지원 관련 제도개선

❷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 ◆ 해외 판로 지원체계 다양화 · 고도화
- ◆ 제조-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 트랙레코드 축적 및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❸ 경제외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

- ◆ 경제외교 후속조치 구체화 등 성과 활용 촉진
- ◆ 서비스 분야 FTA 활용도 제고
- ◆ ODA, 국제기구 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기회 창출

❹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 ◆ 서비스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원팀 코리아' 구축
- ◆ 현지기관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현지 지원체계 고도화

유망업종별 수출 활성화 방안

❶ 콘텐츠	❷ 관광	❸ 보건 · 의료	❹ ICT서비스
▸ K-콘텐츠 전략적 지원 ▸ 콘텐츠 해외비지니스 지원 고도화 ▸ 콘텐츠 수출기반 강화	▸ 한국 관광콘텐츠 확충 ▸ K-쇼핑 편리성 개선 ▸ 관광벤처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 우수 K-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확대	▸ 수출유망품목 지원 ▸ 디지털 수출영토 확대 ▸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3 서비스 수출 정책 · 지원 체계 혁신방안

(1)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 **수출지원 사업의 서비스업 지원 확대 및 서비스 특화지원 신설 · 확대**

○ **주요 수출지원기관**(중진공, 코트라 등)**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7년까지 **50% 이상 확대 추진**(사업內 서비스업 비중의 점진적 확대 병행)

* 기관별 전년 대비 상향된 연간 지원 목표치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지원기업 수 확대, 요건 완화 등), 지원목표 달성도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서비스산업발전TF를 통해 지속 실적점검 · 보완

○ 제품인증·시판매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

* (예) 브랜드K사업(중기부) : (現) 소비재 중심 → (改)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

○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 양성**(코트라)

□ **역대 최대 서비스 수출금융 공급 및 서비스친화적 금융 인프라 조성**

○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23년 12조원, 향후 5년간**('23~'27년) **총 약 64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 특히, 수은·무보 지원규모를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연평균 5.9%)을 상회하는 연 8% 수준으로 증액('18~'22년: 19조 → '23~'27년: 28조)

○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 확대(무보), 온렌딩 지원 조건 완화(산은), 대출한도 우대(수은) 등

○ **서비스 수출기업**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간편가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자동연계시스템** 구축(무역협회, 무보)

○ **서비스 정책금융**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신청 및 서류제출 직통 연계 등 **원스탑(One-Stop) 서비스** 마련

□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및 수출지원 제도 개선

○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 신설**

* 국제기준(IMF BPM6)에 따라 작성되어 일반적인 서비스 분류방식과 차이 존재 (예: SW, 콘텐츠 수출액의 경우 ❶통신·컴퓨터·정보, ❷지식재산권, ❸개인·문화·여가 수지로 산재) →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

○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 확대**

* (現) 용역 20종, 전자적 무체물 6종으로 제한적 열거(상품은 포괄적으로 정의) → (改)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수준(예: 부가가치세법령)으로 확대

○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 실적증명서 전송 원스톱 시스템 구축(발급기관→수출지원기관), 구매확인서 발급시 서비스 분야별 분류코드 추가 등

(2)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 전문무역상사 활용·지원 강화 및 해외 판로 지원체계 고도화

○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지원*

* 분야별 대표기업이 해당 분야에 旣 보유 중인 해외 네트워크, 현지정보 등을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해외 동반진출 추진 등

○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제공을 위해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 확대**

*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 : 79개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해외시장·투자·조달 등 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20년 구축, KOTRA)

□ 제조업과의 동반 진출 및 컨소시엄 형태 해외진출 활성화

○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1]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제조-서비스 동반진출**[2] **지원**

1」 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매칭 → GVC 진입지원
2」 (예) 자동차 부품 수요 발굴 → 제조생산공정 등에 활용되는 AI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 발굴

○ 대기업에 **대·중소 동반성장 지수 점수 부여**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대기업 플랫폼-중소·벤처기업간 동반진출** 지원

□ **서비스기업 트랙레코드 축적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에듀테크) 시범학교 지정, 에듀테크 구매가이드 개발·안내 등 공공조달 운영 개선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확대 등 공공발주 사업에서의 민간 PM 영역 활성화

○ 분야별 지원기관(콘진원, 보건복지인재원 등)을 통해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25만명 이상 양성**(~'27)

* 글로벌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현지 법률 및 문화 등 수출시 유의사항 등

(3) 경제외교 등을 통한 신시장 개척

□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 · FTA 활용도 제고 및 ODA 연계 강화**

○ 아세안, 중동 등 경제외교를 계기로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 발굴**

* (아세안) 한-인니 경제공동위(7월, 산업부), 인니·싱가폴·베트남 수출개척단 파견(6월, 과기부) 등
(중동) UAE 국부펀드 투자 관련 ICT, K-컬쳐 등 서비스 분야 투자협력 강화 등

○ **신규**(GCC, 에콰도르, CPTPP 등)·**개선**(영국, 칠레 등) **FTA** 협상 진행시 **디지털 규범*** 수립을 통해 **문화·컨텐츠 기업 수출** 지원

* 우리 문화·컨텐츠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 자유로운 데이터이전 보장 등

○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거점으로 **서비스 수출 자문관**을 배치하여 협정·지역별 **타켓기업 발굴** 및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분야 무상 지원사업을 사전 매칭***하여, 사업발굴 초기단계부터 **유무상 연계형 사업 발굴**

* (예) (보건의료) 병원건설 - 의료정보시스템, 병원행정 교육, 감염병 대응체계 등 연계
(ICT)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 재난안전 플랫폼, 나라장터 시스템 등 연계

(4)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구축 및 현지 지원체계 고도화**

○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서비스TF」 수출반 중심 운영 → 서발법 제정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확대 개편)

○ 서비스 수출 **해외 거점 확대 및 기능 고도화**(현지진출 컨설팅 기능 추가 등), **현지 지원기관간 인력교류·파견 추진**

순 서

Ⅰ. 추진 배경 ····· 1

Ⅱ. 서비스 수출 현황 및 평가 ····· 2

1.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동향 및 특징 ····· 2

2. 그동안의 서비스 수출 정책 평가 ····· 6

3. 우리의 강점 및 기회 요인 ····· 7

Ⅲ.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8

Ⅳ.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 10

1.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 10

2. 현장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 15

3. 경제외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 ··· 19

4.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 22

Ⅴ. 향후 추진계획 ····· 23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급성장

○ 코로나19 이전 **세계 서비스 무역**은 상품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

* '10~'19년간 연평균 무역 성장률 비교(%): (서비스) 5.2, (상품) 2.5
* 세계 서비스 무역비중(%): ('10) 20.1, ('15) 22.7, ('19) 24.1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 대면성 완화 등으로 **서비스 교역 비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서비스 융합*** 등으로 **신시장 창출**

* (예) 제품렌탈 서비스, 제조지원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등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국경간 이동이 본격 재개**되면서 **서비스 무역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무역 성장률(%): ('20)△17.7, ('21)17.4, ('22)15.4
* '19년 WTO는 전세계 서비스 무역 비중이 '40년 최대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는 경제의 서비스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출은 정체

○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고용 비중은 꾸준히 확대된 반면,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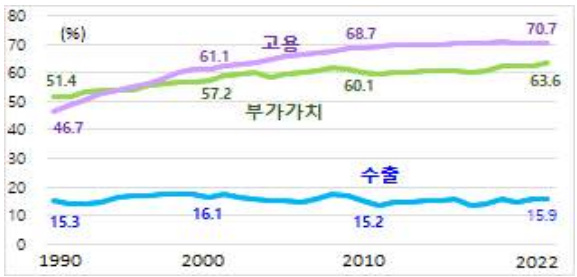
* 분야별 수출 순위('10년→'22년, WTO): (상품)7위 → 6위, (서비스)14위 → 15위

▪ **총수출 中 서비스비중**은 **15% 내외에서 20여년간 정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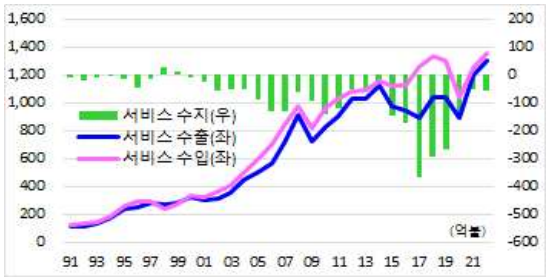
* 주요국 서비스 수출 비중('22년, %): (미)31.0, (영)48.1, (프)34.6, (독)19.5, (일)18.2, (세계)22.3

▪ **서비스 수지**도 '90년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지속 적자**를 보이며, **서비스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를 못하는 상황**

서비스 산업 비중(부가가치, 고용, 수출)



서비스 수출·수지 추이



◇ **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돌파구 및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 수출의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무협 추정): (서비스업) 0.812 / 21.3, (제조업) 0.613 / 8.2

Ⅱ. 서비스 수출 현황 및 평가

1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동향 및 특징

□ [규모] 年 1천억불 내외로 세계 15위, 제조업 대비 낮은 위상

○ '22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1,302억불 규모로 전체 수출 중 약 16%

※ **국제수지**중 비거주자와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서비스收入** 항목을 **서비스 수출**로 간주

▪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수출(6위) 대비 국제적 위상이 낮음

* 서비스 수출 상위 5개국: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중국, (4위) 독일, (5위) 아일랜드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

(억불)	'15	'16	'17	'18	'19	'20	'21	'22
상품수출액(A)	5,431	5,119	5,803	6,263	5,567	5,179	6,495	6,905
서비스 수출액(B)	**975**	**948**	**897**	**1,037**	**1,038**	**896**	**1,199**	**1,302**
비중(B/(A+B), %)	15.2	15.6	13.4	14.2	15.7	14.7	15.6	15.9
서비스 수입액(C)	1,121	1,122	1,264	1,331	1,307	1,043	1,252	1,357
서비스 수지(B-C)	**△146**	**△173**	**△367**	**△294**	**△269**	**△147**	**△53**	**△55**

□ [업종] 운송, 건설 중심 → 지식서비스 수출 비중 확대 추세

○ 과거 서비스 수출은 운송, 건설 중심이었으나, 코로나19 이전까지 여행과 지재권, ICT,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이 크게 성장

코로나19 이전 부문별 서비스 수출

(억불, %)		운송	여행	건설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ICT	사업	개인·문화	그외
'10	규모	389.9	102.6	119.8	21.6	31.9	10.3	116.4	4.0	33.1
	비중	47.0	12.4	14.4	2.6	3.8	1.2	14.0	0.5	4.0
'19	**규모**	**270.7**	**208.7**	**96.5**	**38.5**	**77.5**	**76.7**	**222.9**	**12.7**	**34.3**
	비중	**26.1**	**20.1**	**9.3**	**3.7**	**7.5**	**7.4**	**21.5**	**1.2**	**3.3**
'10~'19년 증감		△1192	106.0	△23.2	16.9	45.6	66.4	106.5	8.7	1.2

* 그 외 분야: 가공서비스,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 특히, 콘텐츠, 보건의료 분야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유망 수출산업으로 성장

* 콘텐츠 수출액(억불): ('10)32.3, ('19)102.5, ('21)**124.5** ※ 출처: 문체부 콘텐츠산업조사
* 외국인 환자(만명): ('10)8.2, ('19)**49.7**, ('21)14.6, ('22)24.8 ※ 출처: 복지부

▪ 그러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ICT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의 수출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

* 서비스 수출 구성비(%, G7/한국, '21년):
(운송) 13.8/35.3, (건설) 1.0/5.1, (ICT) 9.5/12.2, (지재권) 11.9/6.7, (사업서비스)31.9/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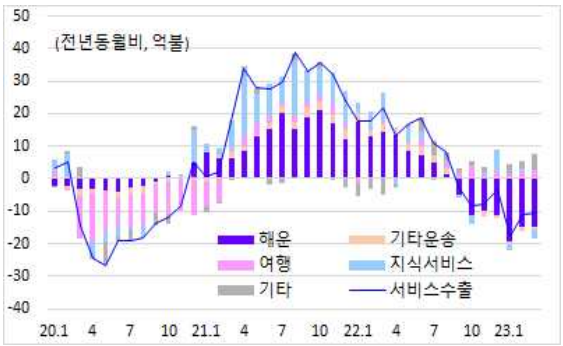
○ **'21년 이후**에는 해상운임 상승에 힘입어 **해운이 서비스 수출**을 **견인**하며 **연간 규모**('22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모습**

▪ 다만, '22.9월 이후 해운운임 하락, 물동량 감소 등으로 다시 **해운수출이 위축**되며, **전체 서비스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19) 811 ('20) 1,265 ('21) 3,792 ('22) 3,410 ('23.4) 1,007
*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백만TEU) : ('19) 197.7 ('20) 194.9 ('21) 207.9 ('22e) 200.4 ('23f) 198.8

'21년 이후 서비스 수출 및 월별 증감 추이

(억불)	'19	'20	'21	'22	'20~'22 증감
전 체	1,038	896	1,199	1,302	+406
운 송	271	239	424	483	+244
(해 운)	**(196)**	**(178)**	**(341)**	**(383)**	**(+205)**
여 행	209	103	108	120	+17
지식서비스	390	398	514	541	+143
기 타	169	156	154	15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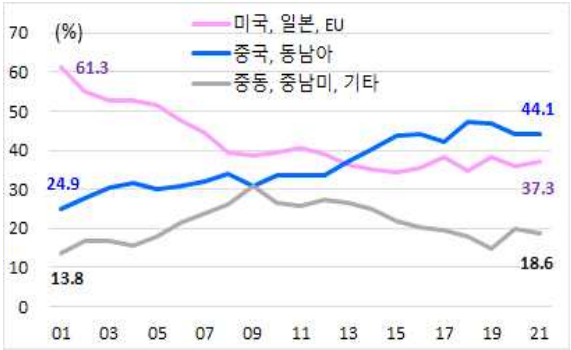


□ [지역] 中 · 동남아 등 신흥시장 ↑ , 美 · 日 등 선진시장 ↓

○ 지역별로는 **중국·동남아** 등 **신흥시장 비중이 상승**하는 반면, **미국·일본·EU** 등 **선진시장 비중은 하락 추세**

▪ 최근 **사우디·UAE 정상 경제외교**를 통한 **'제2의 중동 붐'** 확산 등 **중동지역 신시장 개척 기대감 고조**

서비스 수출의 지역별 비중 추이



부문내 지역별 서비스 수출 비중('21년)

(억불)	美, 日, EU	中, 동남아	중동, 중남미, 기타	합계
전 체	37.3	44.1	18.6	100.0
운 송	32.1	51.1	16.7	100.0
여 행	26.8	68.7	4.5	100.0
지식서비스	47.9	36.4	15.6	100.0
기 타	25.5	33.3	41.2	100.0

[참고] 서비스 무역의 분류

□ WTO는 '서비스 무역(수출·수입)'을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국적 및 지리적 소재를 기준으로 4가지 형태(Mode)로 규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1조

① Mode 1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

  * 例) 영상·음악·게임 해외판매, 국제전화, 운송 서비스 등

② Mode 2 :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소재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例) 관광, 유학, 외국인 환자 유치, 유지·보수 서비스 등

③ Mode 3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소재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 소재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例) 은행/병원의 해외지점 설립 등 지사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④ Mode 4 :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 소재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例) 해외 현지에서의 회계·법률서비스 컨설팅 등

□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해외법인을 통한 무역(Mode 3)이 58.9%로 가장 높은 비중**(WTO, '17년)

○ 다음으로 일반적 교역방식인 **국경간 공급(Mode 1)이 27.7%**, 해외관광·유학 등 **해외소비(Mode 2)가 10.4% 차지**

* WTO(`17): Mode 1(27.79%), Mode 2(10.4%), Mode 3(58.9%), Mode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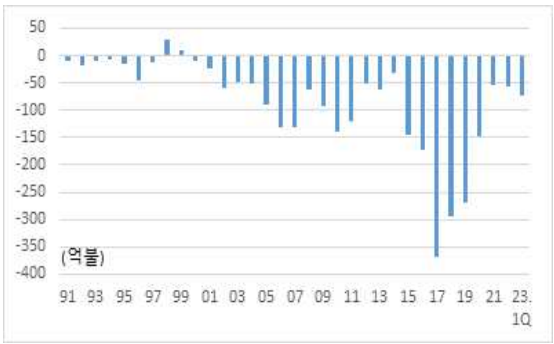
[참고] 서비스 수지 동향

□ **(동향)** 서비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지**는 '90년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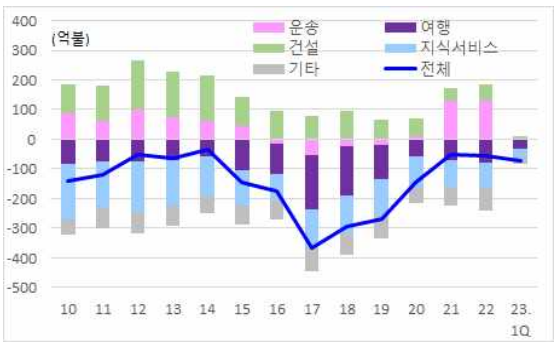
○ '20~'22년간 해운 등 **운송수지 흑자 전환,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금년들어 **해운업 호조세 약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

* 서비스수지(억불): ('10)△139.7, ('15)△146.3, ('20)△146.7, ('21)△52.9, ('22)△55.5, ('23.1Q)△72.0

서비스 수지 추이



부문별 서비스수지 추이



□ **(구조)** 부문별로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이 서비스수지 적자를 주도

주요 서비스수지 현황(연평균)

(억불)	주요 적자부문				주요 흑자부문		
	여행	사업	가공	지재권 사용료	건설	운송	ICT
'10~'19년	△104.0	△109.1	△63.7	△36.8	112.1	32.3	7.5
'20~'22년	△69.2	△89.7	△58.1	△32.6	51.3	90.3	22.9
'10~'22년	△96.0	△104.6	△62.4	△35.9	98.1	45.7	11.1

○ **(여행) 해외 관광 및 유학**을 중심으로 **적자 구조 지속**

* 여행 부문별 수지('10~'22년 평균, 억불): (일반여행)△60.5, (유학연수)△35.5

○ **(사업·가공) 상품 수출** 중심 경제구조,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현지 기업활동·생산 관련 해외 서비스 이용** 지속 발생

* 해외 시장조사, 광고, 컨설팅, 현지 생산 임가공료 등

○ **(지재권 사용료)** 콘텐츠 수출 증가로 **음향·영상 수지는 흑자 전환**, 핵심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특허권 등 사용료가 적자 지속**에 기여

* 음향영상 관련 지재권 수지(억불): ('18)△1.9, ('19)0.3, ('20)2.9, ('21)3.6, ('22)4.1
음향영상外(특허, 상표, SW복제배포 등): △18.7 △21.9 △32.8 △34.0 △41.6

2 그동안의 서비스 수출 정책 평가

□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노력 지속

○ 그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제조업 중심의 **무역구조 혁신** 등을 위해 **서비스 수출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추진**

*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17.12),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8) 등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

○ '11년부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지속 추진 중**

□ 서비스 수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의 격차 지속

○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상품수출 지원에 초점, 서비스 고유의 특성 고려 부족**

▪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황**

* 주요 수출지원사업 지원 비중(코트라, 중진공): ('17) 제조업 78.2%, 서비스 19.3%
('22) 제조업 74.2%, 서비스 20.4%
수출기업 정책금융지원 비중(수은 등 7개기관): ('17) 제조업 70.0%, 서비스 5.0%
('22) 제조업 77.3%, 서비스 3.9%

▪ 현장에서 서비스기업은 **자금조달 애로,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을 여전히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서비스 수출 애로 요인 설문조사**(산업연, '22.12, 848개社)

▸ ❶연구개발·투자 등 **자금조달** 애로(19.8%), ❷현지 **시장정보** 부족(19.5%), ❸수출 **전문인력** 부족(17.9%), ❹**기술경쟁력** 열위(17.3%) 順

○ FTA 등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비스기업의 **FTA 인지도·활용도가 낮아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이 부진**

* 현재 FTA 활용 지원사업은 원산지 증명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 제조업 위주로서 **서비스업 지원은 全無**

○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으로 다부처 소관 과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간 **서비스 수출 컨트롤타워 부재**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 구성을 지속 발표('17년, '20년) 및 추진했으나, 일회성 개최에 그침

3 우리의 강점 및 기회 요인

□ [강점①]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 등 강한 소프트파워 보유

○ '방탄소년단(빌보드차트 1위)', 영화 '기생충(아카데미 4관왕)' 등 **한류 확산의 기념비적 성과 창출** 및 **전 세계 두터운 소비층 확보**

○ **콘텐츠 수출**은 **코로나19에도 성장**('21년 124.5억불), **타 산업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부상

⇒ **(기회①) 강한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우리 서비스는 **수출 잠재력이 충분**하고, 한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국가 이미지 활용 가능**

□ [강점②] 우수한 제조업 · IT 경쟁력 확보

○ 그간 반도체·가전·IT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 보유**

* (제조업)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제조업 경쟁력 지수 5위('20년), 상품수출액 7위('20년)
(디지털) IMD 디지털경쟁력 지수 8위('22년)

⇒ **(기회②)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여 **제조-서비스업 동반 해외진출, 신기술 접목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 [강점③] 최근 경제외교 · FTA 등 성과

○ **사우디·아세안 정상 경제외교**('22.11월), **UAE 순방**('23.1월) 등을 통해 **협력채널 공고화, 비즈니스기회 발굴**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59개국 발효) **진행 중**

* 최근 RCEP('22.2월 발효), 한-인도네시아 CEPA('23.1월 발효) 등이 발효되었으며, 한-중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한-GCC(걸프협력회의) FTA 협상 등 진행 중

⇒ **(기회③) 경제외교·FTA 성과**를 아세안, 중동 등 우리의 **주력·전략 시장**에 대한 **서비스 해외진출의 모멘텀으로 활용**

◇ **그간 축적해온 산업 역량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노력 필요**

Ⅲ.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 기본 방향 】

◇ 우리 **서비스업이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

○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글로벌 서비스 수출 강국** 실현

【 추진 전략 】

1 상품 중심의 수출 정책·지원 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혁신**

① 재정, 금융 등에서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 및 **서비스 특성에 맞는 제도 구축**

② **최신 트렌드**와 **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판로 개척, 트랙레코드 축적,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③ **경제외교, FTA, ODA** 등 **대외 경제협력 성과**를 발판으로 **서비스 新시장 적극 개척**

④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서비스 수출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서비스 원팀 코리아)

2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ICT** 등 **수출유망 서비스업**에 대하여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별도 안건 발표)

* 서비스 수출 내 비중이 크고, 증가율이 높은 업종: 관광, ICT
- 서비스 수출내 비중('19년, %): (여행) 29.1, (ICT) 7.4
  수출 증가율('10~'22년, %): (여행'10~'19년) 8.2, (ICT) 22.5, (전체) 3.8

*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큰 업종: 콘텐츠, 보건의료
-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21년)
- 2023 세계 250대 병원(美 뉴스위크지 선정)내 한국 병원 18곳(미국, 독일에 이어 3위)

3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생산성·경쟁력 제고** 노력 병행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연내 수립

비전

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서비스 수출 강국 실현

목표

'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불 달성(세계 10위),
'30년까지 2,500억불 달성(세계 7위),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

정책지원 체계 혁신

❶ 제조업과의 격차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 ◆ 수출지원사업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 역대 최대 수준의 서비스 수출금융 공급
- ◆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구축 추진
- ◆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등 수출지원 관련 제도개선

❷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 ◆ 해외 판로 지원체계 다양화 · 고도화
- ◆ 제조-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 트랙레코드 축적 및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❸ 경제외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

- ◆ 경제외교 후속조치 구체화 등 성과 활용 촉진
- ◆ 서비스 분야 FTA 활용도 제고
- ◆ ODA, 국제기구 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기회 창출

❹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 ◆ 서비스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원팀 코리아' 구축
- ◆ 현지기관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현지 지원체계 고도화

유망업종별 수출 활성화 방안

❶ 콘텐츠

- ▸ K-콘텐츠 전략적 지원
- ▸ 콘텐츠 해외비지니스 지원 고도화
- ▸ 콘텐츠 수출기반 강화

❷ 관광

- ▸ 한국 관광콘텐츠 확충
- ▸ K-쇼핑 편리성 개선
- ▸ 관광벤처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

❸ 보건 · 의료

-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 ▸ 우수 K-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확대

❹ ICT서비스

- ▸ 수출유망품목 지원
- ▸ 디지털 수출영토 확대
- ▸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Ⅳ.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1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1) 수출 지원 재정 사업

□ 기존 수출지원 사업의 서비스 산업 지원 비중 대폭 확대

○ 주요 수출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7년까지 50% 이상 확대 추진*

* 사업 內 서비스업 지원 비중의 점진적 확대도 병행

▪ 기관별로 전년 대비* 상향된 연간 지원 목표치 설정

* 전체 지원실적 중 서비스업 지원 실적(기업 수 또는 예산액 기준 등)

▪ 지원기관별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 실현 방안 마련

* **(지원기관 → 수출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참여요건 완화 등
(정부 → 지원기관) 지원 목표 달성도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등

수출지원사업 개편안 예시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개선방안
지원비중(규모) 확대	중기부 수출 컨소시엄사업	· 동일·유사·異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해외진출 지원	·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상담회 지원 비중 확대(쿼터제 운영 등)
	중기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 대기업 해외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서비스기업 해외진출과제 비중 확대 (쿼터제 운영 등)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수출바우처 자동선정, 시중은행 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 제공	· 서비스수출기업 비중 확대(쿼터제 운영 등)
	코트라 서비스BM 해외진출지원사업	· 해외진출역량에 따라 전략 수립, 현지화 기반구축, 사업 파트너 발굴,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 ('22년 50개사 → '23~'27년까지 400개사)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개선방안
요건 완화 등	산업부 수출 바우처사업	· 수출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홍보·바이어발굴·전시회·인증 등을 수출바우처로 지원	· 서비스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서비스업이 활용가능한 메뉴 확대

▪ 시행 이후 서비스산업발전TF를 통해 **목표 대비 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서비스 수출에 특화된 지원 신설 및 확대

○ 제품인증·시판매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

수출지원사업 개선방안 예시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개선방안
서비스업 신규지원	중진공 해외지사화사업 시판매지원	· 소비재 전용으로 해외 바이어 시판매 비용지원	· 시판매 지원사업 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포함
	중기부 브랜드K	· 소비재 전용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홍보, 수출바우처 제공, K박람회 등 참여기회 부여	· 에듀테크 등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 글로벌기업·해외정부 대상 수요 발굴하여 국내기업 매칭	· 기존 제조업 수요 발굴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 * (예) BMW자동차 부품 수요 발굴 → AI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 발굴

○ 기존 **서비스기업 대상 지원**은 규모·횟수 등을 **대폭 확대**

▪ 서비스업에 특화된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 양성**

▪ 서비스 분야 **해외 유망 전시회**의 **한국관 참가 확대***를 통해 **국내 유망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 강화**

* '22년 기준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84회 중 서비스 관련 전시회는 9회 (美 정보보안 전시회 등 주로 고부가서비스·정보통신 분야)

(2) 금융 지원

□ 역대 최대 수준의 서비스 수출금융 공급

○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23년 12조원, 향후 5년간**('23~'27년) **총 약 64조원의 수출금융** 공급

* 7개 기관(수은, 무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중진공) 지원규모: ('18~'22) 50조 → ('23~'27) 64조

▪ 특히, **수은·무보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지원규모**를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연평균 5.9%)**을 상회**하는 **연 8% 수준**으로 **증액**

* 수은·무보 지원규모: ('18~'22) 19조 → ('23~'27) 28조

□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 확대

○ **서비스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 신설 및 보증료 지원(무보, '23년)

* (現) 수출실적 기반 한도심사 → (改) 재무상태, 성장성 기반 한도심사(최대 10억)

○ **유망서비스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 확대**(무보)

* 수출신용보증상품 대상 보증비율 5%p 상향(최대 90→95%) 및 보증한도 1.5~2배 우대, 보증료 10%p 추가 할인(10%→20%) 등

○ **유망 서비스 업종 대상**으로 **수출기업 온렌딩** 지원조건 완화(산은)

* (기존) 2년내 수출실적 보유 → (개선) 수출실적 없지만 판로확보 확인 가능시 지원

○ **보건의료, 교육, ICT, 지식서비스 산업**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하여 **추가 우대지원 제공**(수은)

* (예) 해외시장개척활동 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우대(중소 30→50억, 그 외 50→100억)

○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로 **'유망서비스 분야' 신설 및 우대지원**(중진공)

* 문화콘텐츠 산업 등 대상 수출지원자금 이차보전율 +1%p 우대(2%→3%) 등

□ 서비스업 친화적 무역금융 인프라 조성

○ **서비스 수출기업**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간편가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자동연계시스템** 구축(무역협회, 무보)

* (現) 관세청 통관실적(제조업 상품 중심)만 자동연계 → (改) 무역협회의 서비스 직·간접수출 실적증명서를 무보에 자동 전송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 **기보 기술평가모형(KTRS) 內 서비스 분야 특화모형**[1]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출유형별 기술평가 체계**[2] **마련**(중기부, 기보)

1」 서비스업(SW, IT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표준모형, 문화콘텐츠 및 크리에이터 모형
2」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에 따른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4가지 서비스 수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가중치 등을 구성

○ **보건의료·에듀테크** 등 수출 유망 분야의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가치평가모형 개발** 및 **금융기관 심사**시 활용

* 분야별 준비도를 고려하여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선행 등 단계적 추진

○ **서비스 관련 정책금융** 정보 파악, 온라인 상담·신청 및 서류제출 직통 연계,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원스탑(One-Stop) 서비스** 마련

(3) 세제 지원

□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구축 추진

○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전속성(재화 등이 특정 서비스 생산에만 사용)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 검토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지식재산권 사용료 등)는 **과세대상에서 제외**('23.2월 시행령 개정완료)

* 기존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제품·상품 수출 목적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과세 제외

(4) 서비스 수출지원 관련 제도 개선

□ 수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 신설**

* 국제기준(IMF BPM6)에 따라 작성되어 일반적인 서비스 분류방식과 차이 존재 (예: SW, 콘텐츠 수출액의 경우 ❶통신·컴퓨터·정보, ❷지식재산권, ❸개인·문화·여가 수지로 산재) →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

▪ 주요 부처·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통계 작성*·공표방안 구체화**('23.3Q)

* 대상 업종, 공표 주기, 세부 항목(업종내 세부 분야, 기업규모, 거래 국가 등), 생산기관 등

□ 보다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지원을 받도록 관련 제도·절차 개선

○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 확대**

* (現) 용역 20종, 전자적 무체물 6종으로 제한적 열거(상품은 포괄적으로 정의) → (改)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수준(예: 부가가치세법령)으로 확대

○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기관(무역협회 등)에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수출실적 증명을 받아야만 지원사업 참여시 수출액으로 인정

▪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기관이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등**으로 **실적 증명서를 직접 전송**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구매확인서 발급**시 **서비스 분야별 분류 코드를 추가**하여 서비스 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 **편의 제고**

* 현재는 HS코드 기준으로 품목 분류하여 코드가 할당되지 않은 서비스 품목은 9999 코드로 임의 분류중 → 서비스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多

▪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확인서 발급을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활동'으로 간주하여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2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1) 서비스 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체계 다양화 · 고도화

□ 서비스 분야의 전문무역상사 활용 · 지원 강화

○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지원*

* 분야별 대표기업이 해당 분야에 旣 보유 중인 해외 네트워크, 현지정보 등을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해외 동반진출 추진 등

** 현재 전문무역상사는 330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나,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는 全無

▪ 기존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外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 수출지원 실적과 연계한 수출보험료 감면 대폭 확대, 유관기관 합동 해외바이어 매칭 이벤트 개최, 전문무역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출바우처 활용 대상에 포함 등

□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바이어매칭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제공을 위해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 확대**

*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 79개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해외시장·투자·조달 등 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20년 구축, KOTRA)

▪ 기관별 **특화된 해외진출 정보 제공**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한 곳에서 해외진출 정보 통합 문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바이코리아(BuyKorea)* 내 **해외 투자자 ·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발굴 및 매칭 지원 기능 신설**

* 바이코리아(buykorea.or.kr):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국내기업 상품 홍보 및 온라인 매칭 지원

▪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DB 구축 및 공유**

▪ 전시회, 상담회를 통해 확보한 **해외 바이어 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매칭 지원 강화**

□ 전시회, 박람회, 엑스포 개최 등 대외홍보 활성화

○ **한류박람회, K-박람회** 개최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콘텐츠 外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수출기업 참여 확대**

* '22년의 경우 한류콘텐츠,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K-브랜드 중기제품 등 중심

'23년 관계부처 합동 박람회 개최(안)

구분	관계부처 합동 박람회									
행사명	한류박람회(KBEE) / 6월, 독일					K-박람회(K-EXPO) / 11월, 태국				
주최	산업부(총괄)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부	문체부(총괄)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부
주관	KOTRA	콘진원	aT	aT	중기 유통센터	콘진원	KOTRA	aT	aT	중기 유통센터

○ **'K-콘텐츠 엑스포'** 확대 개최[1], **'국제방송영상마켓'**('23.8)[2], **'국제 OTT 축제'**('23.10) 및 **정부 고위급 회담**[3] 등을 통해 **투자유치 등 지원**

1」('22) 싱가포르, 스페인 2회 개최→('23) 영국, 미국, 멕시코, 벨기에, 두바이 등 5회 개최 예정
2」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영상마켓으로, 유통상담회, 비즈니스 미팅 등 B2B 행사 개최
3」(예) G20 정상회의 및 재무·관광·교육·보건·문화·디지털경제장관회의 등

(2) 제조-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컨소시엄을 통한 수출 지원

□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한 서비스 동반진출 지원

○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1]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제조-서비스 동반진출**[2] **지원**

1」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매칭 → GVC 진입지원
2」(예) 자동차 부품 수요 발굴 → 제조생산공정 등에 활용되는 AI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 발굴

▪ **코트라와 분야별**(보건·의료, 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 **지원기관간 기업 DB 공유**를 통해 **제조-서비스 동반 마케팅*** 추진

* (예) 의료기기(제조)+디지털헬스(서비스), 자동차(제조)+자율주행(서비스), 기계(제조)+스마트솔루션(서비스) 등

○ **전시회, 박람회** 참여시 **제조-서비스 연계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

* (예) 수출상담 부스 마련, 통역, 홍보관 운영, 판촉행사, 현지 이동·숙박 주선 등

○ **상품 수출에 필수**적인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업과 동반 해외진출 지원**

▪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우수디자인전문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고, 디자인 기업과 수요기업간 **협업 공간 활성화**

* (전국12개소) 5개 지역디자인진흥원, 7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디자인 스타트업 창업, 디자인-수요기업간 협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장비 활용,시제품 제작, 사용성 테스트 등 실시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 상품 디자인의 브랜드화 (K-Design)**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디자인 융합 수출 지원**

□ 서비스기업의 컨소시엄 해외진출 지원

○ 자체 해외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 서비스기업** 중심으로 **동종·유사업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리스크 완화** 지원

▪ **중소 서비스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대형전시회 참여** 등 지원 확대,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의 사무공간 사용시 우대***

* (예) 코트라 열린무역관의 경우 현재 분기별 1회, 최대 5일 사용 → 분기별 2회, 최대 20일 사용

○ **해외 ICT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지원 확대**

▪ 대기업에 **대·중소 동반성장 지수 점수 반영**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대기업 플랫폼 - 중소·벤처기업간 동반진출 지원**

○ **해외 대기업 등과 국내 스타트업간 협력**을 통해 **의료 솔루션 개발·수출**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중기부) 內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협업기업 또는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주요 R&D·실증·수출 지원사업 등과 연계 강화 등

(3) 서비스 기업의 트랙레코드 축적 및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 공공수요 활성화 등을 통한 트랙레코드 축적 지원

○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에듀테크 **시범학교 지정, 공공조달 운영 개선***을 통해 **학교 내 에듀테크 활성화** 및 수출기업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23.下)

* 에듀테크 구매 가이드를 개발, 안내하고 SW 형태 에듀테크 관리 방식 등 개선 추진

▪ **에듀테크 소프트랩[1]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한 **R&D·테스트베드[2] 기회 제공 및 활용모델 개발** 추진

1」('22) 경기, 대구, 광주 3개소 운영 중 → ('23~) 6개소 추가 설치 추진
2」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에듀테크 기업을 연계하고, 교원이 테스트 요원으로 참여

▪ **엔지니어링** 해외시장에 대한 국내 **PM(Project Management)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서의 **민간 PM 영역 활성화***

*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확대(설계~시공 → 계획~시공), 대규모 복합공사의 통일성 있는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 업역 신설 등 추진

○ 국내 서비스 기업에게 **양질의 해외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국가간 테스트베드 교환사업 추진**

※ **英 Cross Border Test Initiative 사례**

▸ 영국은 핀테크를 중심으로 전세계 30개국과 테스트베드 교환사업을 '20년부터 추진 중으로, 테스트베드를 위한 기술적 장벽은 물론 해당국 규제 이슈까지 조율하여 수준높은 해외 실증 기회 자국 내 기업에 제공

○ **K-테스트베드** 실증 결과 **성능이 우수한 서비스**에 대해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플랫폼과 연계**하여 **온라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 K-테스트베드 추천 서비스에 대해 해외진출 기업 선정 심사시 **우대사항 부여**, 영문 상품 **홈페이지 메인화면 표출** 등 **홍보 우대**

□ 유망서비스 수출 교육 강화를 통한 서비스 무역 전문인력 확충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내 유망서비스 교육 과정 확대**

▪ 콘텐츠 외 **ICT, 의료·헬스케어 등 유망서비스** 분야도 **서비스 산업 선도대학으로 선발**[1」 2」]

1」현재 4개 대학(건국/계명/순천향/한국외)을 콘텐츠 분야 선도대학으로 지정
2」콘텐츠 외에도 ICT, 의료·헬스케어 등 유망서비스 분야 연계사업 추진대학도 우대

▪ GTEP 참가자가 **서비스 수출 기업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산·학 협력** 추진

○ 분야별 지원기관(콘진원, 보건복지인재원 등)을 통해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25만명 이상 양성**(~'27)

* 글로벌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현지 법률 및 문화 등 수출시 유의사항 등

3 경제외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

(1) 경제외교 성과 활용 촉진

□ 아세안, 중동(사우디·UAE) 등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 후속조치 구체화

○ **(아세안)** 한-인니 **경제공동위**(7월, 산업부) 등을 계기로 **기존 성과**[1]를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관심이 높은 **ICT, 보건 분야 투자기회 발굴 추진**[2]

1」 인니 N병원 운영 및 의료인 교육, F병원 소화기외과 분야 등 교육·연수협력 등
2」 한-아세안 보건의료 분야 고위급 회담(6월, 복지부), 인니·싱가폴·베트남 수출개척단 파견(6월, 과기부),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8월, 과기부) 등

○ **(중동)** 사우디·UAE 정상 경제외교시 체결된 **MOU 등 성과***의 **조속한 이행 지원** 및 **신규 투자기회 발굴**

* (예) 디지털 기술 활용 관광기업 서비스 수출, 콘텐츠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메타버스 기술협약 등

▪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산업부)를 통해 경제외교 성과를 이행점검하고, **셔틀 경제협력단**[1]을 파견하여 서비스 분야[2] 수주 지원 등 **투자협력 강화**

1」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단체, 대·중소기업 등으로 구성, 연내 4차례 파견 추진 (1차, 3.16, UAE) 방위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2차, 5.3 UAE) 관광·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
2」 ICT, 콘텐츠, 엔지니어링 등

▪ UAE 국부펀드 투자 관련 **ICT, K-컬처** 등 우선협력분야 중심으로 **투자 성과 창출**을 위한 **양국간 투자협력 강화**

* 신뢰성·수익성을 갖춘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산은 등)·공공(기재부)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 구축·운영

□ 서비스 경제외교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 서비스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실화**

*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 합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등 정보제공

○ 서비스 분야별 **해외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업종별 유망지역**(중동, 동남아 등)**을 발굴 및 수출개척단*** 파견

* 장·차관급 대표 등 고위급 회담,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등 종합 수출 로드쇼 개최

(2) 서비스 분야 FTA 활용도 제고

□ 전략적 FTA 협상·이행을 통한 국내 서비스기업 진출기회 확대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도록 **국가별 전략적 협상 추진**

* 한-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FTA(건설, 병원·의료 등)

○ **RCEP**('22.2월 발효), **한-인도네시아 CEPA**('23.1월 발효) 등 신규 발효된 **FTA 이행위**를 통해 **서비스 분야 등 경제협력 사업*** 추진

* 유망 분야 전문가 교류, 비즈니스 매칭, 시범사업 시행 등

▪ **RCEP**을 통해 개방[1] 된 **문화·콘텐츠, 유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현지진출** 지원[2]

1」(필리핀)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등, (인니) 식음료 도매·프랜차이징 분야
2」현지법인 설립, R&D, RCEP 역내 기업과의 매칭, FTA를 활용한 전문 컨설팅 등

○ **신규**(GCC, 에콰도르, CPTPP 등)·**개선**(영국, 칠레 등) **FTA** 협상 진행시 **디지털 규범*** 수립을 통해 **문화·컨텐츠 기업 수출** 지원

* 우리 문화·컨텐츠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 자유로운 데이터이전 보장 등

○ IPEF 서비스 국내규제(SDR) 규범 수립을 통해 **면허·자격 승인 절차**의 **투명·공정한 운영***으로 **국내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

* 면허·자격 신청 처리현황 제공, 합리적 수수료 부과, 성평등 보장, 중소기업 부담감소 등

□ 국내 서비스기업의 FTA 활용 인프라 확충

○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거점으로 **서비스수출 자문관**을 배치하여 협정·지역별 **타켓기업 발굴** 및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 **'FTA강국 KOREA'** 내 **유망서비스 등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예) 컨텐츠 해외 출원·등록 지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K-뷰티 아카데미 등

○ **중소 서비스 수출기업**의 **FTA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수출 특화 전문교육 과정** 신설(FTA 사이버연수원*)

* (現) 총 44개 과정 중 서비스 분야는 2개에 불과 → (改) 서비스수출 관련 교육과정 확대

(3) ODA, 국제기구 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기회 창출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동반진출 모델 발굴

○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분야 무상 지원사업을 사전 매칭*하여, 사업발굴 초기단계부터 유무상 연계형 사업 발굴

* 인프라-서비스 패키지 예시
- (보건의료) 병원건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의료인력 원격교육 서비스 등 연계
- (ICT)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 재난안전 플랫폼, 나라장터 시스템 등 연계

▪ EDCF F/S 지원을 확대('23년 202억원, 전년 대비 9.2%↑)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 진출 활성화

○ 우리 서비스 기업, 인력들의 해외진출 기회 창출 지원

▪ 수원국 F/S 지원의 낙찰하한율을 상향*(60→70%)하여 국내 컨설팅社간 과당경쟁 억제 및 우수한 트랙레코드 축적 지원

▪ 수원국 발주기관 등과 직접 협업하는 민간 현지 컨설턴트[1](PMC)를 파견[2]하여 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대상국 협력 전문인력 양성

1」 (역할) 한국 전문가가 EDCF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을 지원하여 사업 준비, 성과관리 등 EDCF 사업 全 단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소통 중재 수행
2」 (대상국) 다수 EDCF 사업이 진행 중이나, 현지사무소가 없는 파키스탄 등 주요협력국

※ **EDCF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사업 수주한 사례**
▸ **(A컨설팅社)** EDCF 미얀마·라오스 수자원·교통·에너지 사업 컨설턴트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17~'21년 기간 세계은행 6건, ADB 7건 등 국제기구 F/S·설계·감리 수주

□ 서비스 분야 국제기구 협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활성화

○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MDB 협력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예) EBRD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자동차, IT, 그린 산업 등의 한국기업과 매년 EBRD 수원국 매칭행사 실시('17~, KOTRA 협업) → 향후 서비스분야 유사사업 발굴

○ 서비스 분야 KSP 사업 집중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 'KSP 민간사업 제안제' 홍보, KSP 정책사례 가이드 內 유망 서비스 분야 추가편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참여 독려

* (現) 디지털 전환, 환경, 공공행정 등 3개 분야 → (改) 3개 분야 外 서비스 분야 추가

▪ KSP 사업 추진시 협력대상국의 서비스 분야 기업·정책가 등의 방한 연수 확대 및 국내 수출기업과의 협력 강화

4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구축

○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유기적·체계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 수립, 서비스 수출 정책 심의·조정

▪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 향후 서발법 제정시 법정 심의·조정기구인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

○ 수출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서비스 수출 **분야별 주관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

* (예) 콘텐츠진흥원(콘텐츠), 보건산업진흥원(의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디지털서비스), 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 코트라(에듀테크 등)

▪ 관련 애로해소 사례는 DB화·공유하여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 대응**

□ 효과적인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지원체계 고도화

○ 서비스 수출 전략지역에 **해외 거점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현지 수요발굴, 시장조사, 거래선 관리 등 종합 지원**

* (現) (거점 무역관, 코트라) '23년 28개소, (해외비즈니스센터, 콘진원) '23년 15개소, (해외 IT지원센터, 코트라·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년 6개소 등

▪ **서비스 거점 무역관**(코트라)에 서비스 수출기업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진출 컨설팅 기능 추가**

서비스 거점 무역관 기능 강화

구분	현행	개선
기능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공간, 컨설팅·모니터링 기능 추가** (해외 동향조사, 기술협력 및 R&D 수요 발굴, 현지 진출 컨설팅 등)
분야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서비스, 융복합서비스 등 확대**
참여	중소중견기업	**산업전문가**(협단체), **IP·FTA 센터** 등 추가

○ **현지 수출지원기관**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 현지 정보공유, 다양한 협업사업 추진 등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현지 지원기관간 인력교류·파견**을 통해 **수출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제고**

* (예) 현지 진출 수요가 있으나 현지 사무소가 없는 수출지원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타 기관에 직원 파견

Ⅴ. 향후 추진계획

□ 금번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 구축**

○ 서비스TF 下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평가**

* 기재부 1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민간전문가 공동주재

○ **점검결과는 서비스산업발전TF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미흡·지연** 또는 **보완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

□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ICT 外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마련, 발표**

* (예) K-디자인 혁신 전략(산업부), 에듀테크 진흥방안(교육부) 등

□ 아울러, 금년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수립, 발표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도 지속**

참 고 **과제별 Action Plan**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부처·기관
❶ 제조업과의 격차해소 및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		
▪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24~	기재·산업·중기
▪ 제조업 대상 지원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24	산업·중기
▪ 서비스업 특화 지원제도 확대	'23~	산업·중기
▪ 서비스 수출금융 확대	'23~	기재·산업·금융·중기 등
▪ 수출성장금융제도 신설 및 보증료 지원	'23.2Q	산업부
▪ 유망서비스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할인	'23.4Q	산업부
▪ 유망서비스업종 대상 수출기업 온렌딩 지원조건 완화	'23.2Q	금융위
▪ 서비스산업 대상 해외시장개척자금 대출한도 우대	'23.2Q	기재부
▪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로 '유망서비스분야' 신설 및 우대지원	'23.3Q	중기부
▪ 서비스 수출기업의 보험 간편가입상품 이용을 위한 수출실적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23.4Q	산업부
▪ 서비스 수출유형별 기술평가 체계 마련	'23.3Q	중기부
▪ 보건의료·에듀테크 등 분야별 가치평가모형 개발	'24~	복지부·교육부 등
▪ 서비스 정책금융 원스탑 플랫폼 마련	'23.4Q	기재부·중기부
▪ 서비스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실시	'23.下	기재부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서비스 수출목적의 거래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23.2	기재부
▪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23~	기재·산업·문체·과기·복지·한은 등
▪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범위 확대	'23.4Q	산업부
▪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23.3Q	산업부·중기부

❷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 전문무역상사 활용·지원 강화	‘23.3Q	기재부·산업부
▪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수출지원기관 확대 및 정보 통합 제공	‘23.3Q	산업부
▪ 해외바이어 정보 DB 구축 및 온라인 매칭 지원 강화	’24~	산업부
▪ K-박람회에 콘텐츠 외 다양한 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	‘23.下	산업부·문체부
▪ K-콘텐츠엑스포 확대개최, 국제 OTT 축제,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23.下	문체부·산업부·과기정통부
▪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서비스 분야 확대	‘24	산업부
▪ 전시회, 박람회 참여시 제조-서비스 연계기업 우대지원	‘24	산업부·중기부
▪ 제조업-디자인 동반 해외진출 지원	‘23.3Q	산업부·중기부
▪ 중소 서비스 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리스크 완화 지원	‘24	산업부·중기부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대·중소 협력 컨소시엄 지원 확대	‘23	과기정통부 · 중기부
▪ 의료 솔루션 개발·수출을 위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확대	‘24	중기부
▪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 수요 활성화를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23~	교육·산업·국토
▪ 국가간 테스트베드 교환사업 추진	‘24	산업부
▪ K-테스트베드 실증결과 우수서비스의 고비즈 플랫폼 연계를 통한 사업선정·홍보 등 우대	‘24	중기부
▪ GTEP에 유망 서비스 분야 교육과정 확대	‘24	산업부
▪ 유망 서비스 분야별 수출 전문인력 2.5만명 양성	‘23~	복지부·문체부
❸ 경제외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		
▪ 아세안 지역 경제공동위 등 계기로 기존 성과 구체화 및 투자기회 발굴	‘23.下	기재부·산업부·복지부·과기부 등
▪ 중동지역 경제외교시 체결된 MOU 등 성과의 조속한 이행 지원 및 신규 투자기회 발굴	‘23.下	기재·산업·문체
▪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실화	‘23.3Q	산업부
▪ 업종별 유망지역 발굴 및 수출개척단 파견	‘23.下	산업부·외교부

▪ 국가별 전략적 FTA 협상 추진	‘23~	산업부
▪ 신규 발효된 FTA 이행위를 통한 서비스 분야 등 경제협력 사업 추진	‘23~	산업부
▪ 신규·개선 FTA 협상 진행 시 디지털 규범 수립	‘23~	산업부
▪ IPEF 서비스 국내규제(SDR) 규범 수립	‘23~	산업부
▪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거점으로 서비스 수출 자문관 배치	‘24	산업부
▪ ‘FTA강국 KOREA’ 내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	‘24	산업부
▪ FTA사이버연수원에 서비스 수출 특화 전문교육 과정 신설	‘24	산업부
▪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지원사업 메뉴판화 및 사업패키지 발굴 등 추진	‘24	기재부
▪ 우리 서비스기업·인력들의 해외진출 기회 창출 지원	‘23.下	기재부
▪ MDB 협력 프로젝트 추진	‘24	기재부·산업부
▪ 서비스 분야 KSP 집중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24	기재부
❹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23.1Q	기재부
▪ 서비스 수출 분야별 주관기관과 원스톱수출수주 지원단 간 협업시스템 구축	‘23.3Q	기재부 등
▪ 현지 수출지원기관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24	산업부·문체부 등
▪ 해외 수출지원거점 확대 및 기능 고도화	‘24	산업부